

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시사점은 ?

2018/11/21

■ 4,000달러마저 위협받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

가상화폐를 대변하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. 지난 19일 전일대비 12.2% 폭락하면서 4,785달러로 4,000달러대에 진입한 비트코인 가격은 20일에도 10% 가까이 급락하면서 4,313달러선까지 하락했다. 지난해 12월 18일 18,674달러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을 고려하면 거의 80%가까이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.

비트코인 가격의 급락 배경에는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강화, 암호화폐 가치의 불안정성, 실용성 문제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ICO(가상화폐공개: Initial coin offering)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.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 과열(혹은 버블) 현상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로 티격을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.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각종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음과도 상관성이 높다.

특히 4차 산업혁명 열기가 다소 식어가고 있음도 가상화폐 가격의 중요 하락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.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FANG 주가의 하락 및 코발트 가격 급락 현상 등은 4차 산업혁명 관심이나 수요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. 미-중 무역갈등 지속도 4차 산업혁명 열기를 약화시키고 있다. 제조업 2025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중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연초 이후 둔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.

■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당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가와 원자재 가격의 추가 조정을 의미할 수 있음

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.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관련 주가와 관련 원자재 가격의 추가 조정도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.

한편,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가총액 역시 급감하고 있음은 글로벌 경기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. 비트코인 가격 하락, 즉 자산가격 하락의 부정적 영향이 소비활동 혹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. 국내 역시 지난해말과 연초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나 경기에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.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여타 자산시장에 견줄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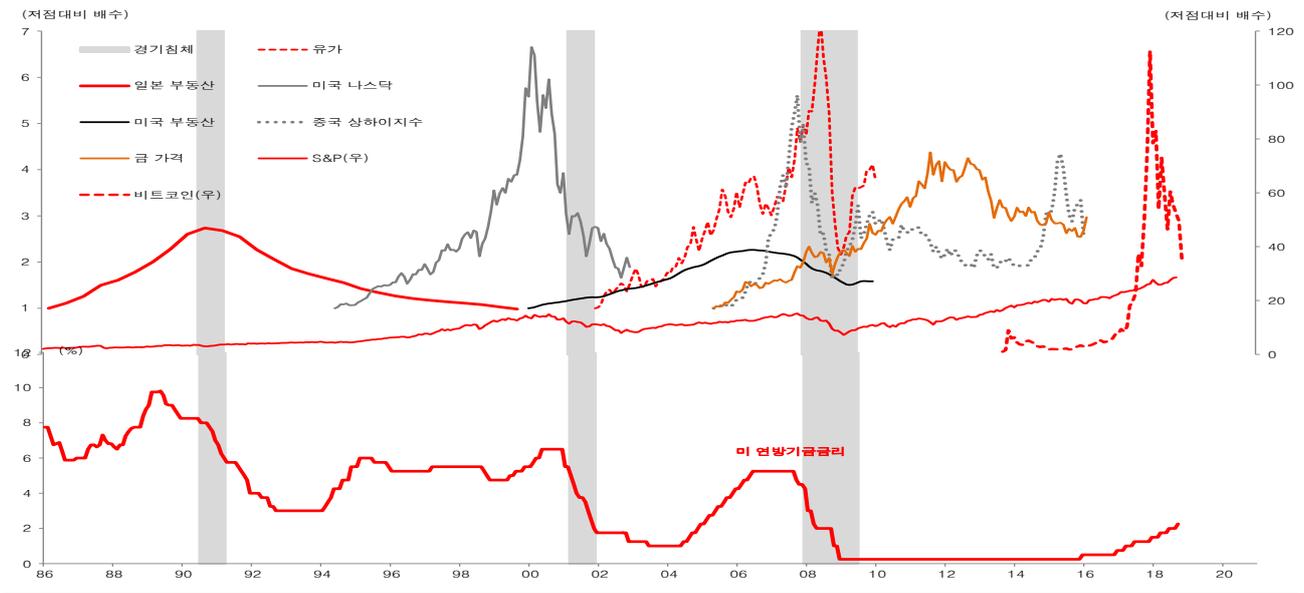
Chief Economist

박상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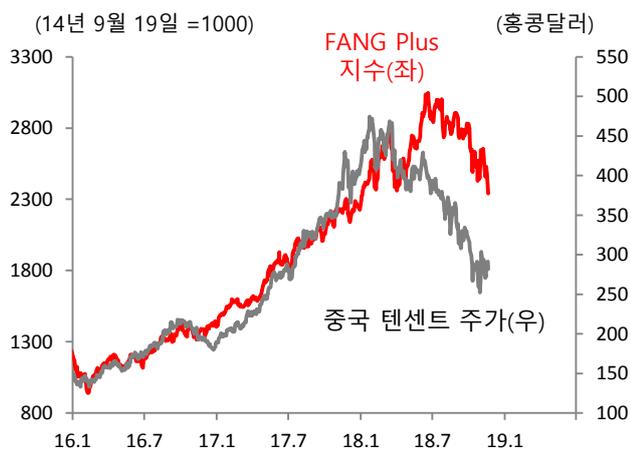
(2009-7355)

shpark@leading.co.kr

<그림 1> 역사적으로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과 함께 자산가격 과열(=버블)현상도 진정



<그림 2> 4차 산업혁명관련 주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



<그림 3> 4차 산업혁명관련 원자재 가격도 큰 폭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



<그림 4> 비트코인과 반도체 가격



<그림 5> 비트코인 시가 총액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Coinmarketcap, 리딩투자증권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